

내달 개막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관람객 안전 최우선...방역 총력전

모든 행사 온·오프라인 진행 현장 관람 5만명으로 조정 방역수칙 강화된 기준 적용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내달 개막을 앞두고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해 관람객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4차 대확산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현장 관람 인원을 당초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조정된 대신 온라인 관람객은 5만명을 늘려 30만명 관람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행사와 전시는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 하되 현장 관람은 사전예약제와 순차 관람으로 운

영한다. 전시관 1인당 관람 인원은 정부의 미술관 3단계 동시 관람 기준을 적용하면 12㎡당 1명이나 수목 비엔날레는 16㎡당 1명으로 강화하고 혼자서도 관람 가능한 오디오 가이드 도입으로 안전한 관람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시관마다 자동소독기를 설치하고, 전문 방역소독업체가 하루 1회 이상 소독하며, 코로나 유증상자 발견 시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한 후 '양상'일 경우 목포시보건소에 인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개막식과 수목패션쇼 등을 비롯한 주요 행사는 현장 참여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야제 및 외교사절단 초청 등 방역에 취약한 일부 행사는 사전에 취소했다. 거리두기가 4 단계로 상향되면 모든 부대행사와 전시는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9월 30일을 기준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면 미사용 사전예약권은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재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9월 집단면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보다 관람객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는 현장 관람뿐 아니라 수목비엔날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관람도 가능 하니 VR 전시관 등 온라인 전시 및 프로그램도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회째를 맞은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두 달간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여수, 광양, 나주, 광주에서는 4개 특별전을 구례, 보성, 해남 등 9개 시군 15개 전시관에서는 수목 기념전을 개최해 울가를 남도 곳곳이 수목의 향기로 가득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 일선, 의료진 응원합니다”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22개 시군 보건소에 음료와 빵 등 간식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전남여성단체협의회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활동과 무더위에 지친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이뤄졌다.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시·군여성단체협의회 등 15개 단체가 소속된 단체로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 양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사회적기업 1대1 비대면 구매상담회

전남도가 지난 12일 전남상사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공공판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과 도내 24개 사회적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비대면 구매상담회를 펼쳤다. 참여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등이다. 비대면 구매상담회에 앞서 공공기관에 사회적기

업 생산물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의향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 기업을 모집해 선정하고 사전 매칭을 통해 온라인 1대1 화상상담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상담 물품은 LED 전등, 전력기자재, 전산 소모품, 업무용수첩, 청사 관리 용역 등이다. 전남도는 전남상사와 함께 온라인 상담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혁신도시 내 온라인 상담 창구와 기업 간 정보교류 장소를 마련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했다. 이번 상담회는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와 사회적기업을 맞춤형으로 연결해 판로 확보가 필요한 사

회적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 실질적인 판매실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덕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이번 구매상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혁신도시와 인근지역의 상생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구매상담회 성과분석 및 추가 상담 모니터링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요물품, 지역 생산 재화와 서비스 데이터를 지속해서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공공기관의 지역생산 물품 구매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벌 쏘임 주의하세요

짧은 장마로 개체수 증가 전남소방 출동 2배 늘어

전남도소방본부가 올해 벌집 제거 출동이 크게 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울여름 짧은 장마 등의 영향으로 벌 개체수가 크게 늘어 소방청에서 7월 29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남도소방본부는 올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벌집 제거를 위해 총 3419회의 출동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27건)보다 97.9%나 증가한 규모다. 벌 쏘임 환자 이송도

한 147건으로 전년(98건)보다 50%나 늘었다. 벌이 공격하면 머리 부위를 가리면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하고, 벌집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야외활동이 늘면서 벌 쏘임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도소방본부는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2만4898건의 벌집 제거 출동을 했으며, 1122명의 벌 쏘임 환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남도미향' 60개사 신규 인증

전남 가공농식품 공동브랜드

전남도가 농식품 공동브랜드인 '남도미향' 인증 업체로 순천농협 남도식품 등 60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했다. 남도미향은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돕기 위해 개발한 가공식품 중심의 전남 대표 공동브랜드다. 전남도는 신규 인증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선정심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남산 원료 사용 여부, 안전성,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인증 제품은 ▲순천농협 남도식품의 김치 ▲구례 농업회사법인 복내리농산(주)의 김 부각 ▲함평맛나푸드(주)의 김 등 60개사 105개 품목, 206개 제품이다. 오는 2023년 6월 말까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남도미향 브랜드를 활용해 국내·외 대규모 판촉행사, 홈쇼핑·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지난 2019년 9월부터 8개 업체를 시작으로 수출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2760억원, 수출 1억7300만 달러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현재 브랜드 공신력이 입증돼 전남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에서 전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화된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남도미향이 전남을 대표하는 브랜드에서 전국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서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우수한 품질에 자신 있으니, 소비자는 인증 품목을 믿고 많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전남지역 177개 업체, 377개 품목, 1193개 제품이 남도미향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바이오시장 선점 쟁결음

17개 연구기관·임업단체와 협의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시장 선점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7개 연구기관·임업단체와 '산림바이오산업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전남지역 바이오기업을 비롯해 임업인과 천연자원연구센터 등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학계, 산림청 정책 담당자로 구성됐으며, 전남형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방향 설정과 운영 성과분석 및 추가 상담 모니터링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요물품, 지역 생산 재화와 서비스 데이터를 지속해서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공공기관의 지역생산 물품 구매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향을 조사하고 경제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 산림자원 소재를 선정하고, 대량 증식과 재배 표준화도 계약재배를 통한 기술 선도로 임업 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추진한 난대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일군 차별화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선 지역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하도록 융복합연구를 통해 식의 약 산업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산림은 4800여 종의 식물과 1600여 종의 버섯 등이 자생하고 있어 천연 바이오 소재 보물창고로 불린다. 그러나 현재 화장품과 식의약품류 등 바이오소재 활용하는 산업계는 대부분의 원료 물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오득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장은 “산림바이오 소재를 필요로 하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면서 바이오 연구기관과 성과를 공유해 바이오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물질 생산능력을 집중 육성, 원료 공급 플랫폼 기능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